

# 동아쏘시오그룹의 힘, '90년 나눔 DNA'에 있다



강신호 명예회장

동아쏘시오그룹은 창립 이후 90년간 '정도, 성실, 배려'의 3가지 경영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온 기업이 다. 강신호 동아쏘시오

창립 이후 사회적 책임 활동 지속  
사명에 사회 라틴어 'SOCIO' 녹여  
환아·청소년 돕기 직원 기부 활발  
폐의약품 수거·친환경 봉투 공급  
ESG 실천 통한 지속가능경영 강화

## ●도움 필요한 곳에는 봉사약국 트럭

동아쏘시오그룹의 사회적 책임 실천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봉사약국 트럭이 대표적이다. 1.2톤 크기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제작한 차량이다. 구호물품을 나르는 것 외에 재난 발생 시 현장에 투입돼 이동식 약국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올진 산발 피해 주민들을 위해 박카스 등을 실은 봉사약국 트럭이 대피소인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방문해 경북약사회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을 공급했다. 이외에 2017년 포항 지진, 2019년 강원 고성 산발 등 재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봉사약국 트럭이 각종 의약품, 음료 등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도 펼치고 있



90여년간 이어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보여주는 동아쏘시오그룹의 봉사트럭. 이번 올진 산발 피해 현장을 비롯해 전국적 재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종 구호물품을 싣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필요시 이동 약국으로도 운영된다.

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소아암과 백혈병 환아에게 임직원 걸음 기부 캠페인 '디스타일 워킹'으로 마련한 1억 원과 그룹이 후원하는 프로골퍼 박상현, 함정우, 이동민 선수가 내놓은 각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해에는 상주시와 지역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후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서울 동대문구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제공하고, 생리대 판매 수익금 일부를 여성 청소년 생리대 후원사업에 매년 지원하고 있다.

## ●환경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동아제약과 용마로지스, 대한약사회는 최근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당진시, 강원 원주시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환경운동연합에는 '지구회복 자원순환 캠페인' 기부금을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과는 함께 주춧돌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회수 과정을 관리하는 '리사이

클 100% 재활용 정거장'도 구축할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구강청결제 가그린에 페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설계를 적용해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실시되기 전인 2019년부터 투명한 제품용기를 사용해 왔다. 어린이 가그린 제품에는 접착 화학물질을 줄인 인폴드 라벨을 적용했다.

약국에 제공하는 홍보용 박카스 비닐 봉지도 친환경 종이봉투로 교체했다. 전국 약국에 공급되는 박카스 비닐봉지는 한달에 약 550만 장으로 이를 종이봉투로 교체하면 제작비용이 3배 증가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비용 부담을 감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린이 전문 건강기능식품 미니막스는 친환경 패키지가 적용된 제품 생산으로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 ●ESG 경영 위한 전담 조직 운영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18년 정도경영 문화 확산 및 정착 전담 부서인 정도경영팀을 신설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입각한 지속 가능경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ESG 경영을 위해 계열사 대표로 구성된 동아쏘시오그룹 사회책임협의회(DSC)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ST와 동아제약은 '사회적 가치위원회'를 신설해 환경과 사회 공헌에 역점을 두고 임직원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교육을 진행했다.

2020년 9월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운영과 경영전략에 포함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 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하도록 권장하고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UN 산하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경영활동에 UNGC 10대 원칙을 내재화했다. 특히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함께 달성해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광동제약, 반려견 영양제 '견옥고' 론칭



광동제약은 반려견의 면역력과 건강을 위한 프리미엄 영양제 브랜드 '견옥고'(사진)를 론칭하면서 관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천연물, 전통원료

개발서 축적한 노하우를 반려동물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첫 제품인 '견옥고 활(活)'은 면역력과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숙지황, 복령 농축액과 홍삼 농축액, 아카시아벌꿀을 주원료로 배합했다. MSM(식이유황), 글루코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 등관절 건강을 고려한 기능성 원료도 함유했다. 광동 직영 네이버 스토어와 온라인 전문 펫샵, 오프라인 동물약국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한편, 광동제약은 '견옥고 활'의 성공적인 시장 론칭을 위해 최근 동물약국 전문 유통플랫폼 펫팜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자생의료재단 고정식 사무총장(가운데)과 부천동충합사회복지관 협력관장(왼쪽 네번째)이 '자생 윈드림 관악단'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자생의료재단 '자생 윈드림 관악단' 창단

자생의료재단은 부천동충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음악적 재능을 가진 지역 청소년의 안정적인 연주활동을 돕는 '자생 윈드림 관악단'을 창단했다. 코로나19로 문화활동 지원이 끊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관악단은 부천 지역아동센터들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35명으로 구성된다. 자생의료재단은 3년간 6500만원을 후원해 클라리넷, 플루트, 트럼펫, 색소폰 등 6개 악기 교육과 합주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 자생한의원과 협의해 합주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 H+양지병원, QR문진 중단 새 방역 체제로

서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원내 출입관리시스템의 QR문진을 중단하고 내원객이 자유롭게 병원 출입하도록 새 방역체제를 가동했다. 정문 출입구, 지하주차장, 응급의료센터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안내기) 운영도 중단하고 내원객이 별도 QR문진과 발열체크 없이 병원 출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외래와 병동은 내원객 안전을 위해 기존 방역체제를 유지하며 병동 입원환자 면회는 계속 제한된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도 예전과 같이 예약시스템(문진포함)으로 운영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 명지병원, 개발도상국에 'K-방역시스템' 노하우 전수

‘이종욱 펠로우십 과정’ 1기 수료식  
우간다·에티오피아 등 4개국 참여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규)이 개발도상국에 'K-방역시스템'을 전수했다.

명지병원은 24일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감염병 대응 전문가과정' 1기 수료식

을 가졌다. 명지병원 ODA사업단(단장 강유민 감염내과 교수)이 주관한 이번 연수는 탄자니아, 우간다, 라오스, 에티오피아 등 개도국 4개국 의료진 9명에게 K-방역 시스템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다.

2월7일부터 7주간에 걸쳐 이론 교육, 현장 학습, 외부 견학 등으로 진행했다. 연수 교육 모듈 커리큘럼은 신종 감염병 이슈와

대응 전략,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진단 및 테스트, 코로나19 임상 및 치료, 감염병 연구&환자 안전 및 의료 품질, 액션 플랜 등 그동안 명지병원이 신종플루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대응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1대1 맞춤교육(지도교수제)을 통해 궁금증을 즉각 해소시켜주고, 명지병원이 운영하

는 인천공항 T1 코로나19 검사센터와 대한결핵협회, 국립중앙의료원 등 감염병 대응현장을 경험하기도 했다. 연수에 이어 7월에는 지도교수가 해당 국가를 방문해 교육내용들이 잘 이행되는지 현지평가를 겸한 추가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명지병원은 5월부터 제2기 감염병 연수 과정을 시작한다. 차기 과정에는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8개국 의료진 및 연구원 22명이 연수생으로 참가한다.

김재범 기자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31일 (목) 음력: 2월 2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                                                                                                                              |                                                                                                                              |                                                                                                                                 |                                                                                                                                 |                                                                                                                                     |                                                                                                                                      |                                                                                               |                  |                                                                                                |                  |                                                                                                 |                  |
|------------------------------------------------------------------------------------------------------------------------------|------------------------------------------------------------------------------------------------------------------------------|---------------------------------------------------------------------------------------------------------------------------------|---------------------------------------------------------------------------------------------------------------------------------|-------------------------------------------------------------------------------------------------------------------------------------|--------------------------------------------------------------------------------------------------------------------------------------|-----------------------------------------------------------------------------------------------|------------------|------------------------------------------------------------------------------------------------|------------------|-------------------------------------------------------------------------------------------------|------------------|
|  <b>쥐</b>                                 | 행운색: 청색<br>길방: 동                                                                                                             |  <b>소</b>                                    | 행운색: 흰색<br>길방: 서                                                                                                                |  <b>호랑이</b>                                      | 행운색: 적색<br>길방: 남                                                                                                                     |  <b>토끼</b> | 행운색: 적색<br>길방: 남 |  <b>용</b> | 행운색: 흰색<br>길방: 서 |  <b>뱀</b>  | 행운색: 청색<br>길방: 동 |
|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복잡한 인간관계도 청산하라. | 썰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기운이다.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책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 나의 운기가 쇠해서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취침 시 북서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 아침이 너무 크고 계획도 웅대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지만 자제하라. 협력자를 얻으면 의외로 발전하고 달성할 수 있는 운이다. 선배나 웃어른의 의견을 참작하면 크게 도움되는 일이 있겠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                                                                                               |                  |                                                                                                |                  |                                                                                                 |                  |
|  <b>말</b>                                 | 행운색: 청색<br>길방: 동                                                                                                             |  <b>양</b>                                    | 행운색: 흰색<br>길방: 서                                                                                                                |  <b>원숭이</b>                                      | 행운색: 검정<br>길방: 북                                                                                                                     |  <b>닭</b>  | 행운색: 검정<br>길방: 북 |  <b>개</b> | 행운색: 흰색<br>길방: 서 |  <b>돼지</b> | 행운색: 흰색<br>길방: 서 |
| 일의 성사가 어려운 날이다.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갈 것. 또한 자기 기반을 굳게 다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의 기운은 인간의 감각이 발동하는 날이므로 연애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자유분방한 날이다.      |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일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페이스대로 나아가라. 신중하고 문기를 거듭해야 한다.   | 자신의 노력이 통하지 않고 가을바람에 날기버전진 나무가 주위에 떨고 있는 상태로 기력이 회복되고 운세가 호운으로 전환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남의 보증을 서지 마라. 반드시 재산상의 손실을 본다. 생각지도 않은 상속의 운도 있다. | 자신의 능력에 비해 꿈이 큰 날이다.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게 쉬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여야 한다. 급속히 성장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벌여놓은 일들은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                                                                                               |                  |                                                                                                |                  |                                                                                                 |                  |

| 스포츠동아                                                 |                   | The sportsdonga |          | 제3794호 |  |
|-------------------------------------------------------|-------------------|-----------------|----------|--------|--|
|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 편집국장 연재호          | 사업총괄 김성수        | 광고국장 이송욱 |        |  |
| 편집부장 안도영                                              | 스포츠부장 정재우         |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          |        |  |
|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 사진부장 고종철          | 인쇄 동아일보사        |          |        |  |
| 광고문의 02-361-1612                                      | 구독신청 1588-2020    | FAX 02-361-1617 |          |        |  |
|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                   |                 |          |        |  |
| 2008년 3월 31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                   |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                   |                 |          |        |  |
| 대표전화 02-361-1610                                      | 제본·투고 02-361-1616 | sol@donga.com   |          |        |  |